<h1>나 혼자만 레벨업-35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d7b0714c139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35화</p>  
<p>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었더니 금방 시야에서 사라졌다.</p>  
<p>'이것도 되려나?'</p>  
<p>혹시나 싶어 죽은 홉고블린의 어깨에 손을 대 보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다. 스킬의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는 듯했다.</p>  
<p>일단 입고 있는 옷이나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만큼은 확실했다.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[마나를 모두 소모하여 '스킬: 은신'이 해제됩니다.]</p>  
<p>"어라?"</p>  
<p>갑자기 '은신'이 풀렸다.</p>  
<p>'쓴 지 몇 초 지났다고 마나가?'</p>  
<p>은신 상태에 익숙해지려고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고 있던 진우가, 당황한 표정으로 상태창에서 스킬 목록을 찾아 확인했다.</p>  
<p>[스킬]</p>  
<p>패시브 스킬: (알 수 없음) Lv.MAX, 근성 Lv.1</p>  
<p>액티브 스킬: 질주 Lv.1, 살기 Lv.1, 은신 Lv.1</p>  
<p>원하는 건 은신 스킬의 정보.</p>  
<p>눈앞에 글자들이 떠올랐다.</p>  
<p>띠링!</p>  
<p>[스킬: 은신 Lv.1]</p>  
<p>액티브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200.</p>  
<p>모습을 감춤과 동시에 시전자의 흔적들이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. '은신'을 유지하는 동안 1초당 10의 마나가 계속해서 소모됩니다.</p>  
<p>필요 마나가 2백에 1초당 10의 마나를 쓴다?</p>  
<p>"하..."</p>  
<p>이러니 마나가 버틸 수가 있나.</p>  
<p>[MP : 7/548]</p>  
<p>딸랑 7 남아 있는 마나가 애처로웠다.</p>  
<p>'진짜 바닥나 버렸네.'</p>  
<p>현재 마나의 최대 보유량은 550가량.</p>  
<p>은신을 한 번 쓰면 35초 정도 유지가 가능했다.</p>  
<p>다른 스킬을 쓸 마나까지 고려하면 35초를 풀로 채울 수도 없다는 소리.</p>  
<p>'그러고 보니 강태식도 몇 초 만에 금방 은신을 해제했었지.'</p>  
<p>놈이 괜히 그랬던 게 아니었다.</p>  
<p>은신을 오래 유지할 마력이 안 되었던 거다.</p>  
<p>상급 헌터인 강태식이 그 정도라면 하급 헌터들은 스킬을 배워 봤자 쓰지도 못한다는 말이었다.</p>  
<p>"마나가 문제네."</p>  
<p>여태까지 지능을 제외한 모든 스탯에 포인트를 투자해 봤지만 마나양이 늘어난 적은 없었다.</p>  
<p>즉 마나를 늘리려면 지능 스탯을 올려야 한다는 건데...</p>  
<p>'슬슬 지능도 올려 줘야 하나?'</p>  
<p>하지만 스킬 하나를 좀 더 오래 써보겠다고 능력치 포인트를 비전투 스탯에 쓰기는 아까웠다.</p>  
<p>'지능은 다른 스탯에 비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.'</p>  
<p>근력, 체력, 민첩, 감각.</p>  
<p>모든 스탯의 효과를 몸소 체험해 보았다.</p>  
<p>스탯이 올라갈수록 눈에 띄게 강해졌다.</p>  
<p>그런데 이 '지능' 스탯만큼은 아무리 수치가 올라가도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체감할 수 없었다.</p>  
<p>'1레벨일 때보다 무려 네 배 가까이 올랐는데도.'</p>  
<p>굳이 달라진 걸 찾는다면 마나양이 커졌다는 것 정도?</p>  
<p>그게 전부였다.</p>  
<p>그런데 그거 하나만 보고 포인트를 투자하기에는 역시...</p>  
<p>'너무 아깝다.'</p>  
<p>그걸 다른 스탯에 찍으면 그게 다 피와 살이 되는 건데 말이다. 그래서 결국은 마나가 모자라지 않을 때까지 레벨업을 계속하자는 결론에 다다랐다.</p>  
<p>능력치 포인트는 더 좋은 스탯에 쓰기로 하고.</p>  
<p>'능력치 포인트라...'</p>  
<p>그러고 보니 긴급 퀘스트를 하고 보상으로 받은 보너스 포인트 다섯 개가 아직 남아 있었다.</p>  
<p>잠깐 지능에 찍을까 고민했던 진우는 결국 근력과 체력에 각각 3포인트, 2포인트를 썼다.</p>  
<p>[스탯]</p>  
<p>근력: 75 체력: 45 민첩: 82 지능: 39 감각: 69</p>  
<p>(분배 가능 능력치 포인트 : 0)</p>  
<p>물리 데미지 감소: 20%</p>  
<p>'역시 뒷자리는 5가 깔끔하단 말이야.'</p>  
<p>진우가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.</p>  
<p>쿠르르르르릉.</p>  
<p>던전 내부의 진동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격렬해졌다.</p>  
<p>'벌써 1시간이 다 됐나?'</p>  
<p>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.</p>  
<p>진우는 상태창을 닫았다.</p>  
<p>일부러 게이트가 닫히기 직전까지 시간을 끌며 기다렸던 것이지만, 여기서 더 지체했다가는 영영 던전 밖으로 나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.</p>  
<p>진우는 보스방을 나가기 직전 뒤돌아서 안을 둘러보았다.</p>  
<p>'마정석은 챙겼고...'</p>  
<p>아무것도 빠트린 건 없었다.</p>  
<p>사실을 확인한 진우는 통로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다.</p>  
<p>쿠르르르르르르릉.</p>  
<p>게이트가 곧 닫힌다고 경고해 주는 것처럼 던전은 방금 전보다 더 세차게 몸을 떨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타이밍 좋게 조사과 직원들이 막 게이트 앞에 도착했다.</p>  
<p>그들은 닫혀 가는 게이트에서 유유히 빠져나오는 진우를 보고 눈을 둥글게 떴다.</p>  
<p>"허, 헌터님! 생존자는 없었습니까?"</p>  
<p>"예."</p>  
<p>"으!"</p>  
<p>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.</p>  
<p>들어간 사람은 아홉 명인데 살아서 나온 사람이 세 명에 불과하다니.</p>  
<p>이 정도면 대형 사고다.</p>  
<p>같은 구역에서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졌으니 협회 직원들로선 아주 죽을 맛일 수밖에.</p>  
<p>생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게이트가 닫혀 버려서 알 방법이 없었다.</p>  
<p>진우가 일부러 아슬아슬한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.</p>  
<p>'생존자가 있었다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.'</p>  
<p>이제 살아 돌아온 세 사람의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였다.</p>  
<p>직원이 착잡한 목소리로 말했다.</p>  
<p>"방금 감시과에서 금강실업 사장님의 자백 전화를 확보했답니다."</p>  
<p>송치열이 한걸음 나섰다.</p>  
<p>"금강실업 사장님이라면?"</p>  
<p>"감시과 강태식 헌터에게 살인을 청부했던 피해자 아버지입니다."</p>  
<p>"아..."</p>  
<p>금강실업 사장은 강태식이 가해자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걸 순순히 자백했다고 한다.</p>  
<p>'사실 강태식이 아니라 나지만...'</p>  
<p>경찰은 그리로 가고, 협회는 이리로 왔다.</p>  
<p>잠자코 있던 진우가 물었다.</p>  
<p>"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?"</p>  
<p>진우의 질문에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했다.</p>  
<p>"예. 그렇죠."</p>  
<p>강태식의 범행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고, 세 사람은 살기 위해 공격해오는 강태식과 싸웠다.</p>  
<p>진우가 물었던 것처럼 문제가 될 일은 없었다.</p>  
<p>다만 한 가지.</p>  
<p>직원은 내내 께름칙하던 부분을 물었다.</p>  
<p>"B급 헌터인 강태식 씨를 누가 죽인 겁니까?"</p>  
<p>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듯했다.</p>  
<p>'하긴 여기서 협회 건물까지 거리가 얼만데. 게이트가 채 닫히기도 전에 도착했으니.'</p>  
<p>연락을 받고서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리라.</p>  
<p>다들 얼굴에 피곤한 기운이 역력해 보였다.</p>  
<p>진우는 사실을 말하기에 앞서 잠깐 유진호의 얼굴을 떠올렸다.</p>  
<p>'안타깝지만 더 이상 레이드는 못 도와주겠네.'</p>  
<p>재각성이라고 둘러대고 등급 재심사를 받게 되면 유진호의 계획에 더는 어울려 줄 수가 없게 된다.</p>  
<p>유진호한테 필요한 건 뛰어난 실력을 가진, 낮은 등급의 헌터니까.</p>  
<p>자신의 등급이 올라가 버리면 모든 게 허사가 된다.</p>  
<p>그런데 어째서일까?</p>  
<p>시무룩해할 유진호의 얼굴을 떠올리니 미안한 마음보다는 웃기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.</p>  
<p>대가로 받기로 했던 빌딩은 아깝게 됐지만.</p>  
<p>'뭐, 어쩔 수 없지.'</p>  
<p>결심이 선 진우가 입술을 떼려는 순간.</p>  
<p>"내가 그랬구먼."</p>  
<p>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갔다.</p>  
<p>거기엔 이주희가 놀란 눈으로 송치열을 보고 있었다.</p>  
<p>"아저씨...?"</p>  
<p>진우가 영문을 묻기도 전에 송치열이 먼저 직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.</p>  
<p>"강태식을 죽인 건 나여."</p>  
<p>직원은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이었다.</p>  
<p>"송치열 헌터님이 강태식 헌터님을 쓰러뜨렸다고요?"</p>  
<p>그도 그럴 것이, 송치열은 C급 헌터에다 왼팔까지 잃은 상태였다. 반면 강태식은 흔히들 상급 헌터라 말하는 B급 헌터가 아닌가.</p>  
<p>상급 헌터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.</p>  
<p>B급 헌터와 C급 헌터의 차이는, C급 헌터와 D급 헌터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상식이었다. 그러자 송치열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.</p>  
<p>"다들 내 뒤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고 있는 건감?"</p>  
<p>"아!"</p>  
<p>모두의 시선이 갑자기 자신에게 쏟아지자 이주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이주희는 B급 헌터다.</p>  
<p>전투계열 헌터가 아니어서 언급되지 않고 있었을 뿐, 등급 자체만 놓고 보면 그녀도 강태식과 같은 상급 헌터였다.</p>  
<p>B급 힐러가 서포트해 주는데 C급 헌터가 B급 헌터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.</p>  
<p>직원들은 그제야 이해가 간다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다소 어수선한 틈을 타 진우가 송치열 옆에 바싹 붙어서 조용히 물었다.</p>  
<p>"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?"</p>  
<p>송치열도 목소리를 낮추었다.</p>  
<p>"성 씨가 능력을 숨기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구먼. 내가 괜한 짓이라도 한 건감?"</p>  
<p>물론 그렇지 않았다.</p>  
<p>덕분에 성가신 일들을 피해갈 수 있게 됐는데 괜한 짓이라니.</p>  
<p>이래서 연륜은 무시할 수 없었다.</p>  
<p>"그건 아닙니다."</p>  
<p>"그동안 성 씨에게 도움만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여."</p>  
<p>조사과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.</p>  
<p>"송치열 씨는 저희와 같이 가시죠. 잠깐 조서만 도와주시면 됩니다."</p>  
<p>"갑시다."</p>  
<p>송치열은 조사과 직원들과 함께 협회로 떠나고, 현장에는 어느새 진우와 주희 두 사람만 남았다.</p>  
<p>벌써 해는 저문 지 오래였다.</p>  
<p>주희는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진우가 어색한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다가왔다.</p>  
<p>"잠깐 같이 걸을래요?"</p>  
<p>'저녁 약속 이야긴가.'</p>  
<p>많이 움직여서 그런지 마침 배도 고팠는데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흔쾌히 수락했다.</p>  
<p>"그래요."</p>  
<p>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누가 앞장서는 일 없이 나란히 가로등 불빛 아래를 조용히 걸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주희는 시선을 발끝으로 모았다.</p>  
<p>고개를 들고 있으면 자꾸 옆쪽으로 시선이 갔다.</p>  
<p>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.</p>  
<p>예전에는 좀 더 편안한 느낌이었는데, 지금의 진우는 강인함이 흘러넘쳤다.</p>  
<p>그래서 말을 붙이기가 힘들었다.</p>  
<p>'어떻게 된 일일까...?'</p>  
<p>B급 헌터를 어렵지 않게 제압한 것도 그렇고.</p>  
<p>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.</p>  
<p>비밀로 해 달라고 했으니 물어볼 생각은 없지만 엄청난 변화에 계속 신경이 쓰였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